

진도군, 소아·청소년 공중보건의 배치



진도군이 소아과 전문 병·의원이 없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내에 소아·청소년 진료실을 마련했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 받아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시작했다.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진료
대도시 원정 진료 불편·응급 상황 전문성 강화

진도군은 신생아 감소로 소아과 병원이 없어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목포시 등 대도시로 나가 원정 진료를 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매일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진료·상담과 응급 상황 대처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해남군-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2개소 정주 여건 마련

해남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조성된다. 해남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27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은퇴자 공동체마을이란 공무원 평면오산 어촌마을과 황산면 산소 어촌마을 2개소를 은퇴자 공동체 마을로 조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퇴자들은 오는 8월부터 공동체 마을에 2-3개월간 단기체류하면서 귀농귀촌 체험과 지역봉사 활동 등 농촌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군은 은퇴자의 단기체류형 주거공간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모집과 추천, 은퇴자의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등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퇴자 공동체마을이란 공무원연금공단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유복지사업으로, 농산어촌의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기획재정부

완도군의회, ‘청소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호응

유치원생 6명·선생님 방문해 각종 체험 실시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가 지역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회의장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5월 28일 10시에 지역의 모유치원 어린이 6명과 선생님들이 군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에서 각종 체험을 실시했다. 유치원생들은 발열체크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본회의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회의장에 설치된 각종 회의시설을 돌아보고 놀라워했으며 의원 좌석에 앉거나 의장석에서 의사봉 3타 체험을 하고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완도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청소년

과 어린이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면서 미래 꿈나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개방하여 친근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중에는 완도교육지원청의 신청에 따라 관내 중고생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의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이민혁기자



한편, 의회 견학이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7일전에 완도군 의회사무과(550-5900)로 연락하면 된다.

강진군, 아동 위탁부모 보수교육 개최

19명 대상 사업 안내·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역량 강화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전남가정위탁지원센

터와 함께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19명을 대상으로 가정

교육 등을 통해 위탁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탁부모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현재 강진군은 친부모의 사망·방임·학대 등의 사유로 친인척 및 비혈연 가정 등에 위탁된 아동을 건 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총 26명의 아동을 23세대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정성과 사랑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님들의 노고와 정성에 항상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GAP 인증 확대 기본교육 실시

장흥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표고버섯과 멸종 등 생산농가들을 대상으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생산·수확·유통 과정에서 우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인증 절차이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GAP 기본교육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GAP 인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인증 전 필수인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농가들에게 다소 까다로운 인증 절차 과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위촉식 가져



귀농·귀촌 성공, 정착 사례, 마을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개인 SNS, 블로그 등에 생생하게 전달하여 도시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시민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다”며 “동네작가들이 도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올해 4월말 기준 427가구의 도시민을 유치했으며, 도시민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상담에서 정착,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